

## “종합생활가전 브랜드로 우뚝선다!”

# LiHome 부방테크론

‘헤니밥솥’으로 유명한 블랙&실버 밥솥의 ‘리홈’이 종합생활가전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가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방테크론은 올해 초 밥솥 시장에서 경쟁을 벌여왔던 ‘쿠첸’의 밥솥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주력 분야인 밥솥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며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부방테크론은 밥솥뿐만 아니라 소형가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생활가전기업으로, 화려한 비상을 앞두고 있다.

### \* 밥솥 최장수기업, 부방테크론

밥솥 브랜드 ‘리홈’의 모회사인 부방테크론(대표 이대희)은 올해 초 웅진쿠첸을 인수하면서, 밥솥업계 2과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부방테크론은 밥솥사업 외길로만 34년을 걸어온 국내 최장수 밥솥 전문기업으로, 1976년 설립된 삼신공업사를 모태로 시작해 1979년 국내최초로 LG전자와 소형가전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계약을 체결해 전기밥솥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OEM 계약을 추가 체결해 국내 최대 밥솥 OEM 생산업체로 입지를 굳혔다. 34년간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보답한다’는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기술력을 쌓아왔다.

부방테크론은 34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지난 2006년 프리미엄 생활가전 브랜드인 ‘리홈’을 선보였다. ‘리홈’은 이로울 리(利)와 Home의 결합 또는 Living과 Home이 합쳐진 말로, 가족의 삶에 이로움을 주는 생활가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후 리홈은 밥솥뿐만 아니라 제습기, 전기다리미, 자외선 살균건조기, 전기스토브, 선풍기 등 다양한 소형가전제품으로 제품생산을 확대하며 종합 생활가전 브랜드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 국내 최초, '리훴' 만이 선보인다.**

리훴은 밥솥업계에서 생각지도 못한 최초의 시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밥솥업계를 대표하는 한 축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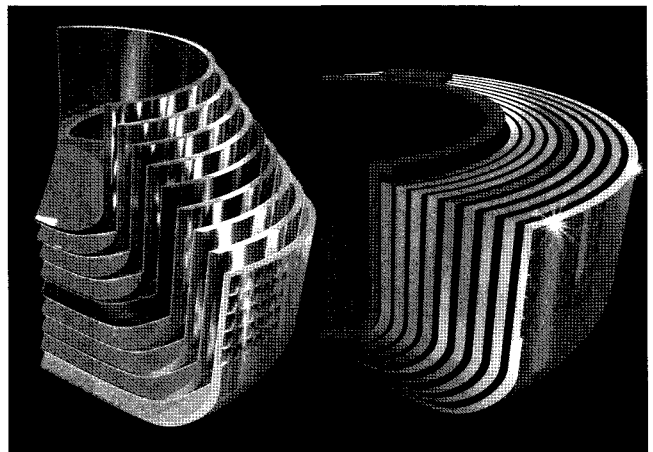
이대희 부방테크론 대표는 국내 밥솥 시장에 최초로 블랙 색상을 도입해 업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명 '다니엘 헤니 밥솥'으로 불리는 '블랙&실버' 디자인도 그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밥솥 시장에서 금기시되던 블랙 색상을 도입할 때, 임원진을 비롯해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대희 대표는 세련된 이미지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블랙과 실버같은 파격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소형가전에 처음으로 접목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블랙&실버 시리즈는 2007년 '베스트셀러' 모델에 오를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 국내최초 스팀보온 기능

한편, 기술 분야에서도 술한 혁신을 주도했다. 국내 최대 내솥 두께인 3.6mm 9겹 판재를 최초로 개발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가마솥처럼 두꺼운 내솥은 열 전도성을 높여 밥을 차지게 하는 일동공신이다.

가장 두꺼운 내솥을 개발하면서 '리훴'은 디자인에 이어 기술 주도 기업으로 이름을 날렸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고온 저온을 자동 조절해 밥맛의 변질을 막고, 좋은 밥맛을 오래 유지하는 동시에 전기료를 40%나 절약하는 '예약보온 기능' 등 혁신적인 기능을 선보였다.



▲ 나인클래드 밥솥 9겹 이미지

또 지난해에는 시간이 지나도 수분을 유지해 처음 밥맛을 좀더 오래 유지하고, 밥마름 현상과 변색을 억제해주어 장시간 보온이 가능한 '스팀보온 기능'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취사하기 전, 밥솥 뚜껑의 스팀 탱크에 물을 채워주면, 스팀이 수시로 분사되어 보온시 수분 증발로 발생하는 밥마름 현상과 누렇게 변색되는 시간을 지연시켜준다. 단순히 밥을 잘 짓는 밥솥을 넘어 가마솥에서 밥을 짓는 것처럼 맛있는 밥맛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최대화시켰다.

또한 세계 최초로 밥솥 내솥에 티타늄을 소재로 사용하여, 황금 내솥에 티타늄을 한번 더 도금 처리함으로써 내솥의 굽힘과 벗겨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한 티타늄 밥솥을 내놓았다. 내솥의 티타늄으로 인해 부식이나 변질 없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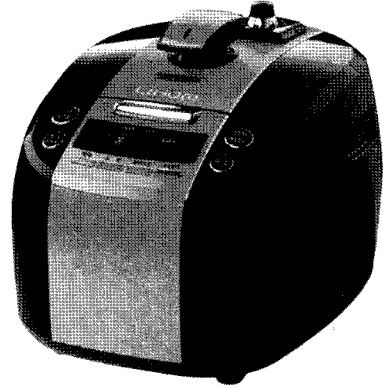
이밖에 안전을 강화한 '헤드록' 잠금 장치, 어린이 오작동을 방지하는 '차일드록'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 리훴, 디자인으로 인정받다.**

'리훴'은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제품 디자인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수상하며 혁신적 디자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 과격적으로 블랙 색상을 전기밥솥에 도입하여, 디자인의 새로운 정형을 제시했다. 한편, 블랙&실버 색상뿐만 아니라, 터치센서, 컬러 그래픽 디스플레이 및 전면 미러창을 장착했으며, 만개한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한 '블라섬(blossom)' 패턴과 핸들 부분에 크리스탈을 장식한 '큐빅 데코'는 럭셔리한 인테리어 감각을 연출했다. 지난해에는 일명 '다이아몬드 밥솥'이 2008년 제1회 핀업디자인상 인증작과 Good Design 선정되는 등 디자인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 가전전문 브랜드 '쿠첸' 인수로 경쟁력 강화**



▲ 리훴 블랙&실버 나인 클래식Ⅲ



▲ 리훴 다이아몬드 밥솥

부방테크론은 가전제품의 수입 개방에 따른 외국 상표의 저가, 염가의 물량 공세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고전하는 역경 속에서도 국내 가전제품 시장을 외국 제품에 내줄

수 없다는 각오와 자존심으로 국내 가전 시장을 굳건하게 지켜왔다.

올해 들어서는 밥솥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왔던 가전전문 브랜드 '쿠첸'의 밥솥 사업부를 인수하여 프리미엄 생활가전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경쟁 브랜드 인수를 통해 밥솥 시장 구도의 재편은 물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 향후 계획 및 목표

부방테크론은 프리미엄 생활가전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기존 제품은 built-in을 추진하고, '쿠첸'과의 인수를 통해 제품 기술 개발 및 디자인 부분에 더욱 역량을 강화해 생활가전 브랜드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리홈'과 '쿠첸' 각 브랜드는 생산라인과 마케팅을 통합하는 한편, 영업은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기존의 독립된 브랜드를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쿠첸'을 밥솥 전문 브랜드로 키우고, '리홈'은 음식물처리기, 가습기, 제습기, 청소기 등 생활가전전문 브랜드로 각각 키울 계획이다. 밥솥 이미지가 강한 '쿠첸'은 밥솥 제품에 특화시키고, '리홈'은 디자인이 특화된 생활가전 전문 브랜드로 키워 각각 브랜드 파워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 판매 시장 확대를 통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전략적인 광고 및 홍보 등을 통해 강력한 영업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